

서울시

음식점 돼지·닭 원산지 표시, 10곳중 1곳은 안지켜

서울시내 소규모 음식점 10곳 중 1곳이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전체 5만3,289곳) 가운데 3,496곳을 골라 돼지고기·닭고기 원산지 표시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6%인 369곳에서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이중 표시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지난 3월 21일 계도기간이 종료돼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강제된다.

이에 따라 34㎡~100㎡ 규모의 업소들도 3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닭고기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33㎡ 미만의 영세 음식점에 대한 돼지고기·닭고기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계도기간은 오는 6월 21일까지다.

경기도

가축 건강상태 인터넷 확인, 축산물 공급 안전 전망

경기도 제2축산위생연구소는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의 건강상태와 안전성 검사 결과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축질병 안전축산물 검사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 시행에 들어갔다고 지난 3월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폐렴 등 8가지 병변검사를 비롯해 항생제 등 유해 잔류물질·광우병 검사, 시

료채취 현황 등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제2축산위생연구소는 각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축의 혈액을 일령별로 채취 후 정밀검사 결과를 축산농가에 제공할 방침이어서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인터넷 확인은 제2축산위생연구소 홈페이지(www.gvs2.go.kr)에 접속 후 검사결과 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축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농장 내 가축의 건강상태 등을 알 수 있다.

학교급식 축산물 전담 '특별관리팀' 가동

경기도는 올해 시행되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과 관련, 특별관리팀을 가동해 우수축산물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고 지난 3월 11일 밝혔다.

도축산위생연구소, 시·군, 시·군교육청,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13개팀 54명으로 구성된 특별관리팀은 경기지역 학교에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을 공급하는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급·품종·부위 등의 허위표시 여부와 제품 보관상태, 유통기한 등을 학기 중 월 1회 이상 불시에 현장 점검한다.

도는 공급업체가 늘어나면 점검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소비자 중심의 '식품위생감시원' 위촉

경기도는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식품위생에 지식이 있는 민간인이나 소비자단체 종사자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 식품안전관리 활동에 나서도록 했다.



시·도·소·식

도는 이에 따라 이들의 식품업소 지도·감시능력을 높이기 위한 직무교육을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나눠 지난 3월 17일과 19일에 각각 실시했다.

이번에 위촉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은 1인당 연간 50일 동안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백화점·재래시장 주변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 감시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도는 이들에게 하루 활동비로 4만원을 지급하고, 연 1회 식품위생관리 우수 제조업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예정이다.

광주시, 특색음식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광주시는 특색음식을 발굴·보급하고자 오는 4월 8일까지 '제2회 특색음식 발굴·육성 경진대회'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진대회는 음식점부문과 일반부문으로 열리며, 참가자격은 ▲음식점부문-광주시 소재 일반음식점 영업주 ▲일반부문-접수일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된 시민, 광주시 소재 대학 요리관련학과 학생, 광주시 소재 요리학원생 등이다.

경연종목은 음식점부문의 경우 업소대표음식이나 개발음식이며, 일반인부문은 쇠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를 주재료로 활용한 음식이다.

참가팀에게는 팀당 30만원의 식재료비 지원, 서면심사와 본선 실기심사를 통해 부문별로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3팀을 선정해 상장과 음식개발보상금을 지급한다.

본선은 '제5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및 제12회 광주왕실도자기축제'가 열리는 경기도자박물관에서 4월 26일 실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위생과(031-760-2837~9) 또는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031-761-2427)로 문의하면 된다.

강원도

춘천시,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37억원 지원

춘천시는 사료값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특별 사료구매자금 37억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3월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법인, 기타 가축농가로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을 통해 대출해 준다.

지원액은 소 1억원, 돼지 2억원, 닭·오리 5,000만원, 기타 가축은 3,000만원까지이다. 한·육우와 낙농은 마리당 120만원, 양돈 10만원, 양계 650원, 오리 3,000원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금리 1%에 소는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돼지와 기타 가축은 2년 균분상환이다.

■ 문의 : (033)250-3017 시청 축산내수면과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머드치킨' 생산 추진

보령시는 지난 3월 25일 보령머드 가루를 넣은 배합사료로 육질이 뛰어난 '머드치킨'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령시는 이를 위해 닭고기 생산 전문회사인 (주)육성과 머드치킨 생산을 위한 머드원료공급계



약을 지난 3월 20일 체결했다.

머드원료는 사료전문업체인 (주)천하제일사료에 연간 30톤을 공급, 배합사료에 넣어 생산되며 8개 시·군에 있는 (주)육성 계열 40여 육계농가에서 한해 100만 수의 머드치킨을 생산할 예정이다.

생산된 머드치킨은 '만세보령 공동브랜드'를 붙여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고급브랜드의 웰빙 식품으로 납품될 예정이며 E마트와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머드에는 피부에 좋은 성분뿐 아니라 무기질, 미량원소, 비타민B₂, 리보플라빈, 비타민, 광물질 등 사람 몸에 유익한 영양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진군, 안정적 축산경영 위해 282억원 투입

당진군이 올해 열악한 축산경영 개선을 위해 282억2,700만원을 투입한다고 지난 3월 24일 밝혔다. 이는 한·미 FTA 등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등으로 어려운 축산업 여건을 이겨내기 위해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생산성 향상이 필요함에 따른 조치다.

분야별 투자 내용은 한우·젖소 등 대가축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6억8,200만원, 양돈·양계 등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14억1,000만원, 브랜드 육성사업에 8억6,300만원, 조사료 확보 사업에 22억8,000만원, 전염병 예방 및 소독지원에 20억2,600만원 등이다.

또 사료가격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으로 158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규모는 축종별

m²당 한도액을 정해 한우는 21만6,000원, 젖소는 18만5,000원, 돼지는 50만원, 닭은 30만4,000원 등 총 21억7,500만원이다.

특히 안정적 축산경영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8개소, 축분처리용 로더지원 15개소, 고압세척기 지원 32개소, 액비저장조 4개소,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발효제 구입지원 27톤, 축분처리용 톱밥 왕겨 12톤 등 22억4,900만원을 투입한다.

군은 가축전염병 조기 근절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및 콜레라혼합백신, 소 브루셀라병 등 소독 및 예방 백신 20억2,600만원을 지원한다.

천안시, 무인헬기로 SI 방역

천안시는 지난 3월 25일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용정 양계단지 주변에서 공무원, 축협 및 농협 관계자, 축산농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제소독을 실시했다.

이날 일제소독은 아우내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무인헬기를 지원받아 차량과 인력의 손길이 미치지 어려운 지역에 대한 소독이 이루어졌으며 시 전역의 11개 방제단 532개 농가에서 방역 차량과 농가 소유 장비를 총동원하여 효과적인 방역활동을 벌였다.

시는 지난해 4월 1일 전북에서 고병원성 시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5월까지 구제역 방역과 함께 지속적인 방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풍세면 용정리 양계단지에 대한 집중관리를 유지하면서 무인헬기를 통한 방제활동을 2차례 추가로 실시하고, 종오리·육용오리 등 SI



발생 위험이 큰 46농가와 가금류 사육 162농가에 대한 사전 예찰을 강화하고, 매주 수요일 일제 소독의 날 운영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충청북도

청원군, 축산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175억원 지원

청원군은 국제 사료곡물가격 상승으로 배합사료 가격이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어려워진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175억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3월 23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사료구매자금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에 한해 연 1%의 대출금리로 소의 경우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돼지 등 기타축종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며 축종별 지원한도는 소 1억원, 양돈 2억원, 양계·오리 5천만원, 기타축종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지난해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축종별 지원한도 내에서 기 지원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와 달라진 조건은 대출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대출약정 후 사료구매실적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를 제출 시 마다 분할 지급한다.

축종별 지원 단가는 한·육우, 낙농(120만원/두), 양돈(10만원/두), 양계(650원/수), 오리(3,000원/수), 기타가축은 사료구매 실적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된다.

경상남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70억원 투입

경상남도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축산물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어려운 축산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축사시설 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첫 해인 올해 86곳에 1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지난 3월 3일 밝혔다.

축종별 지원은 한우농가 45곳 39억400만원, 양돈농가 22곳 94억2,400만원, 젓소농가 12곳 7억4,000만원, 양계농가 7곳 29억6,100만원 등으로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의 비율로 지원된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2005년 말까지 축산업 등록을 완료한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시설 개보수와 철거 및 이전, 재건축 등이 지원 대상이다. 또한 축사 내 급이·급수 시설과 환풍기 등 장비교체 시에도 지원된다.

농가의 사업비 한도액은 보조와 융자, 자부담을 포함해 소 2억5,000만원, 양돈 11억2,500만원, 산란계 17억5,000만원, 육계 8억7,500만원이다.

경상북도

가축방역대책 추진 결의대회 개최

경상북도는 지난 3월 6일 경상북도 농업인회관 3층 회의실에서 2009년 가축 방역대책 추진 결의대회를 가축위생시험소 및 시·군 방역담당, 생산자단체장 및 시·군지부장, 경북수의사회장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전영한 한우협회 경북대구지회장, 최재철 양돈협회 경북도협의회장, 송인환 양계협회 경북지회장 등 생산자단체장들은 농장소독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악성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 및 재발방지를 위해 방역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했다.

전라남도

올해 234억 투입해 현대화사업 본격 착수

전라남도는 지난 3월 18일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234억원을 투입, 노후화되고 환기가 안 돼 악취 발생 등이 많은 축사시설을 개선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19일 전남도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 162명 및 시·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축사시설 조기착공 및 친환경축산 인증 실무교육을 갖고 사업비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해 조기착공을 통한 지역경기 부양에도 일조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시설 현대화사업 축종별 지원액은 한우 70농가 74억, 돼지 24농가 76억, 젓소 34농가 28억, 닭 21농가 34억, 오리 13농가 22억원이고 보조 30%, 융자 50%, 자담 20%로 지원되며 융자조건은 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이다.

농가별 지원한도는 한우·젓소는 2억원, 돼지는 9억원, 산란계는 14억원, 육계, 오리는 7억원 이하다.

지원대상은 한우, 젓소, 돼지, 닭, 오리를 사육하고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을 등록한 농

가 중 돼지, 닭, 오리는 가축계열화사업체에 가입했거나 전업농인 경우, 한우, 돼지는 브랜드경영체에 가입했거나 전업농인 경우이다.

지원시설은 축산업 등록을 한 면적 범위 내에서 축사 신축 또는 개축, 그리고 축사내부 기자재로 사료 급이시설, 급수, 소독, 환기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폐사축 처리시설 등이다.

강진군, 황금닭 정보화 마을 개소

강진군은 지난 3월 12일 용정마을에서 황주홍 군수와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황금닭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개소식을 열고 가동에 들어갔다.

정보센터에는 30여대의 최신식 컴퓨터, 초고속 인터넷망, 프로젝터, 방송장비 등을 갖췄으며 사업비 3억원이 투입됐다.

정보화 마을에는 용정, 현산, 아흥 등 5개 마을 30여가구가 참여하고 있는데 연간 30여만 마리의 황금닭을 생산, 시판할 예정이다.

이 마을은 지난 1월부터 홈페이지 구축 등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갖췄으며 특산물 보관을 위한 저장창고 신축, 포장재 제작 등도 마쳤다. 특히 지난 2년간 정보화 마을 조성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인터넷 교육, 정보화마을 행사 참여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전라북도

철새도래지 AI 방역 강화

전라북도는 최근 익산과 군산에서 발생한 저병



시·도·소·식

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특별방역에 나선다고 지난 3월 9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21일 익산과 군산에서 저병원성 시가 발생해 토종닭 등 6만 1천여 마리를 매몰함에 따라 시 방역상황실을 계속 유지하고, 국내 대표적 철새도래지인 금강하굿둑과 만경강 일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 일대에 예찰 요원을 배치하고 1억원을 들여 분무용 살균제 등 방역 약품을 지원하고, 이날부터 4월까지 집중 소독에 나선다.

또 수의사회 등 관계 기관과 철새 분변을 검사하고, 각 축산농가에 수시 자율방역을 권장하는 한편 축사나 사료창고 등에 조류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물망 설치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제주도

제주 병아리 자급률 100% 향상

제주도는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소재 한라육계 조합(월 40만 마리)과 한동리 소재 한라씨에프엔(월 50만 마리)의 병아리 부화장 2개소와 구좌읍 행원리 한라씨에프엔의 도계장(일 5만 마리) 1개소 설치를 모두 완료했다고 지난 3월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타 시·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양계산물(병아리, 닭고기 등) 반입금지 조치로 도내 생산 병아리가 수요량 대비 17% 정도 밖에 공급되지 않아 도내 양계산물 수급 불균형 초래로 생산농가, 관련업계 등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되풀이 되고 있었다.

이번에 병아리 부화장이 확대 설치됨에 따라 제주지역 병아리 자급률이 종전 17%에서 100%로 제고, 수급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앞으로 도계장내 가공장 설치를 통해 본격적인 닭고기 생산체계가 구축되면 일본바이어와 MOU체결 등을 통한 일본수출을 추진키로 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앞서 '냄새와의 전쟁'

제주시는 지난 3월 25일 한림읍 실내체육관에서 양돈·양계농가 및 협회, 축협, 액비재활용업체 관계자와 공무원, 지역공수익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노로 인한 냄새 발생을 억제하자는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제주시는 청정축산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직원, 공익수익사 등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5월말까지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가자들의 이동경로 주변 축산사업장을 주 1회 이상 집중적으로 방문하도록 했다.

제주시는 또 직접적인 냄새 저감 방안으로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14억1천100만원을 투입해 10개소의 축산사업장에 냄새방지시설을 설치하고, 3개소에는 미생물 생산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이밖에 1일 100톤의 가축분뇨를 자원화 할 수 있는 2개소의 공동자원화시설을 조기에 정상가동하고, 냄새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선진축산사업장도 견학시킬 계획이다. <한>